

‘교육지원 한눈에’에서 내게 꼭 맞는 ‘교육지원’ 혜택 한번에 찾아보세요!

- ☑ 약 60여 개의 교육복지·지원 정책이 **한곳에**
- 🔍 나만의 맞춤형 교육지원 정보를 **한눈에**
- 🔔 신청시기 및 정책내용 변경 알림도 **한번에**

교육지원 한눈에 🔍

<http://eduone.moe.go.kr>



특별기획
2018년 3월

특별기획_여러분의 학교는 안전하십니까?

특별기획_여러분의 학교는 안전하십니까?

지금! 혁신교육_시흥혁신교육지구
대학교육_고등교육 재정과 공영형 사립대
교육 선택_교장공모제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행복한 교육



Vol. 428. 2018. 3



교육부

CONTENTS

March 2018 Vol. 428

• 본지에 수록된 기사·사진·일러스트의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duzine21@gmail.com)
•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기획

여러분의 학교는 안전하십니까?

김상곤의 교육편지

안전은 모든 교육활동의 감초와 같습니다

세계의 교육 변화

해외사례로 보는 학생 중심 안전교육의 시사점



02



09



72

현장이야기

- 02 클로즈업 안전한 등굣길
- 04 지금! 혁신교육 시흥혁신교육지구
교육청-학교-지자체가 힘 모아 '교육생태계' 조성
- 08 삶과 교육 손덕제 울산 매곡중 교사
- 12 이런 수업 어때요 이유진 교사의 '온작품읽기' 수업
- 16 아하! 진로체험 공호진 연양초 교사의 초등 진로
- 20 나눔 실천하는 사람들 철도 기관사 꿈을 응원하다
안전한 등굣길 파수꾼이 되다
- 22 명예기자 리포트 아듀! 평창 동계패럴림픽 외

정책이야기

- 30 **특별기획** 여러분의 학교는 안전하십니까?
- 32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요”
- 34 체험 중심의 학생 안전교육_ 시도교육청 우수사례
- 36 교육시설 안전대진단으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
- 38 학교폭력 제로를 향한 첫걸음!
- 42 김상곤의 교육편지
안전은 모든 교육활동의 감초와 같습니다
- 44 정책N전망 교육 정책의 격과 질
- 46 정책카툰 초등 우리 아이, 온종일 안심
- 48 초점, 4차 산업혁명 평생교육 청사진
- 52 꽃 피는 교육자치 강원 / 경남 / 세종 / 광주



04

정보이야기

- 55 **교육 썰전** 교장공모제
- 56 자격증이 우수한 교장을 담보할 수 있는가?
- 58 자격증이 없어야 유능한 교장이 될 수 있는가?
- 60 **대학교육** 고등교육 재정과 공영형 사립대
- 63 **세계의 교육 변화** 해외사례로 보는 학생 중심 안전교육의 시사점
- 66 **학급운영노트** 새 학기, 소극적인 아이와 만났을 때
- 68 **아이의 다락방** 학기 초 나홀로인 미영이
- 70 **이야기 인문학** '미투 운동'과 악의 평범함에 대한 재인식
- 72 **일상의 썬포** 광양 매화마을
- 76 **뉴스브리핑**
- 79 **행복 게시판**

표지이야기

시흥시의 지원으로 장곡중학교(교장 박석균)에 마련된 목공실습실 정규일과 중에는 학생들이, 저녁 7시 이후에는 마을주민들에게 개방된다. 마을의 손재주 많은 어른이 아이들의 선생님이다. 지역사회의 지원을 듬뿍 받아 성장하는 아이들이 이번에는 마을을 위해 나섰다. 주민센터, 매골공원, 숲속마을 등 마을이정표를 만든 것. 아이들이 곧 마을에 걸릴게 될 이정표를 들고 활짝 미소를 보낸다.

시흥혁신교육지구

교육청-학교-지자체가 힘모아 ‘교육생태계’ 조성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학교는 마을과 떼어 놓고 이야기할 수 없으며, 학교 울타리 안의 제한된 교육만으로는 분명 세상을 배우는데 한계가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생·학부모·교사 외에 지역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두고 수년 전부터 혁신교육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아이들을 길러낸다는 의미에서 ‘혁신교육지구’ 정책을 추진해왔다.

“아이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



김윤식 시흥시장

Q 2017년 시정 목표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정하며, 일 가정 양립, 아동친화 도시 사업 등을 추진하고 계신데, 이를 집약한 개념인 ‘시흥아이 정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동안 시정 목표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쏟았고, 생애주기 맞춤형·종합지원도 해왔다. ‘시흥아이’는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온 도시가 함께 고민한 시민자치력의 결과물로 임신, 출산, 청년, 결혼 등 전 영역에 걸쳐 지역사회 곳곳에 확산 중이다. 급식비를 제외하고 시흥시의 한 해 교육예산이 110여억 원 규모다. 도로 1km를 정비하는데 드는 예산과 맞먹는다. 시흥의 현재와 미래를 내다봤을 때 도로 1km를 정비하는 것보다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훨씬 미래지향적이고 의미 있는 일이라 판단하고 있다.

Q 강조하고 계신 ‘시민자치력’이 무엇이고 시민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시민의 자치력은 시흥시가 여러 행정 분야에서 성장하는데 바탕이 되고 있다. 시민자치력의 대표적인 사례가 시흥 마을축제가 아닐까 한다. 우리가 꿈꾸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할 필요가 있었고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학교가 중심이 된 마을축제를 기획했다. 이런 경험이 시민의 자치력을 성장시켰고 교육 분야에도 협력의 변화가 이뤄졌다. 지난해 지역주민의 힘으로 행복교육박람회를 개최했는데, 70곳의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면서 교육에 대한 갈증과 열망을 느낄 수 있었다. 자치행정과 교육행정이 뒷받침된다면 학교와 지역사회는 무한성장을 할 수 있다.

Q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협력이 강화되는 모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논의가 부족한 상황인데, 올바른 교육자치와 지방 자치의 협력 모델이 있다면?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무던히 노력했지만 담당자가 바뀌면 기본적인 의사소통도 안 되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래서 각기 다른 조직이 정책이든 사업이든 하기 위해서는 한공간에서 구상단계부터 함께 하고 필요하면 조사도 함께 하면서 생각의 격차를 좁히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현행 제도에서는 특별자치기구를 만들 수 없기에 교육청소년과 내에 ‘행복교육지원센터’를 만들었다. 시청-교육청-학교현장 교사-학부모-학생이 한공간에 모여서 의논하고, 조사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각자 위치에서 책임 있게 시행하자는 것이다.

1. 시흥시 능곡마을축제 2. 교육협력 실무협의체

교육과 행정의 만남 ‘시흥혁신교육센터’

2011년 경기도교육청과 협약을 맺고 ‘시흥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교육청-학교-지자체가 힘을 모아 교육생태계를 조성해 온 시흥시의 사례는 지자체의 의지가 교육생태계를 얼마만큼 변화시킬 수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혁신학교에서의 오랜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박현숙 교사는 “지자체는 교육행정이란 명목으로 교육경비를 세우고 집행은 하지만 학교 사정을 잘 모른다. 대부분의 교육경비를 시설에 지원하고 있었다.”며 “시흥혁신교육지구의 가장 큰 성과는 기존의 시설 사업 중심의 경비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의 문화, 수업, 교육과정,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시흥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초기단계에서부터 혁신교육연구회 교사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었기에 가능했다. 또 박



교사는 “당시 교육청-학교-지자체의 일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과 상임위원회가 꾸려졌는데, 시에서 교육청소년과장님과 시장님이 협의회에 꼭 나오셨다.”며 “그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이 바로바로 행정에 반영되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았고 이후 교육청의 교육장님과 교수학습과장님도 정례적으로 참석이 이뤄져 교육청-학교-지자체의 협력이 견고해졌다.”고 당시의

경기 혁신학교 장곡중학교
혁신교육의 철학을 공유하는 일에서부터 출발

장곡중학교는 올해 9년차 혁신학교로서 경기 혁신교육의 선도 모델로 손꼽힌다. 초창기 혁신교육을 리드했던 교원들의 상당수는 이미 학교를 떠났지만 장곡중에서는 여전히 전교원이 함께 하는 '배움의 공동체 수업'을 통한 수업혁신을 학교 운영의 중심에 둔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

이윤정 혁신부장은 "다른 학교에서는 모두가 배움의 공동체 수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 놀라워한다. 배움의 공동체 수업을 방법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면 유행이 되기 때문에 '한 명의 학생도 수업에서 소외되지 않고 수업의 주인으로 만든다'는 철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장곡중도 여느 학교와 마찬가지로 교원들의 이동이 잦은 편이다. 올해에는 35명 중 10명의 교원이 새로왔다. 이런 환경에서 장곡중은 매년 2월말 5일간의 자체 연수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신규·전입·기존 교사가 함께 새 학기 교육과정을 만들고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다. 전입 교사들이 학교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원하는가 하면, 교육과정에도 충분히 의견을 듣고 보완하여 연차기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밖에도 학교 안 전문적학습공동체(연간 60시간), 수업교민과 수업성장을 도모하는 전체 제안수업(연5회), 학년별 공개수업(연5회), 독서토론



(월1회), 수업보기모임(월1회) 등 공동체가 함께 하는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여기에 학년 중심의 조직 운영은 교사들이 소통하고 협력하는데 가교역할을 한다. 학년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교 조직을 최소화하여 학년과 담임 중심의 조직으로 전면적으로 재편성하였다. 이윤정 혁신부장은 "학년 체제로 앓다보니 서로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 과정에서 수업에서 소외되는 아이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아이들의 배움에 중심을 두고 수업 공개를 하면서 교사들도 성장을 경험하였고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한다.

장곡중의 '수업개선 솔루션'도 서로 수업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탄생했다. 수업이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을 때 장곡중 교사들은 "그럼 우리 학년에서는 무엇을 해볼까"라며 적극적으로 변한다. 스스로 꽤 관찮은 교사라는 자부심이 있고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면 그 손을 잡아주는 동료가 있다는 믿음은 서로를 성장시키는 촉매제가 된다.

상황을 설명했다. 2015년 4월경에는 교육전문가와 행정전문가가 한 공간에서 모여 시흥교육을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며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취지로 '행복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였다.

이처럼 교육과 행정 간의 협력이 견고해지면서 최근에는 사업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개선까지 연대가 이뤄지고 있다. 교육과 행정의 칸막이를 과감하게 걷어내고 시흥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밀도 높게 다가가기 위해 교육지원청의 분야별 장학사, 시 교육 관련 행정지원부서 24팀 담당자가 한 자리에 모여 실무협의를 개최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시흥창의체험학교와 마을교육과정(시흥혁신교육지구 시2준), 즐거운 자기주도학교(일반교육경비), 청소년 종합예술제(학생자치), 시스터스쿨(청소년국제교류), 키네틱아트와 아트캔버스(문화예술), 평생학습마을, 청년협업마을, 다문화 대안학교, 학



교도서관 책받침서비스 등의 사업부터 갯골, 시화나래마린페스티벌, 시흥에코센터, 학교 텃밭, 도시농업박람회 등의 행사까지 총망라하여 현 교육지원 방향을 다양한 시각에서 면밀히



3. 시흥시 행복교육박람회
 4. 5. 장곡중학교 마을벽화 봉사과 모내기

진단할 수 있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학교 교육과정과 시흥시의 교육 사업을 매칭하는 행정시스템을 혁신할 수 있었다.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교육 사업을 한데 모으고 행정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교사들은 원클릭을 통해 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청만 하면 교내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전문 강사를 파견 받을 수 있으며, 학교 밖 마을체험도 손쉽게 가능해졌다.

배움에 학교와 마을이 하나가 되다

올해 9년차 혁신학교인 장곡중학교(교장 박석균)의 텃밭 운영도 생명농업기술센터와의 매칭으로 가능했다. '도시 농부'라는 주민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600평의 논에 볏씨를 뿌려 못자리를 만들고 모내기와 잡초 및 피뽑기 과정을 거쳐 벼를 베고 수확하여 쌀을 판매하였다. 그 수익금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나비기금으로 기부했다. 박석균 교장은 "벼농사는 1학년 자유학기 교과통합 프로젝트로 운영하였는데, '쌀나무'가 아닌 식량, 생명, 환경, 마을을 지키는 벼에서 생산된 쌀이라는 것을 깨닫는 소중한 체험이었다. 아이들을 도와주는 주민이 계시지 않았다면 감히 엄두를 낼 수 없는 교육이었다."고 설명한다.

장곡중학교는 그동안 마을주민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3년째 마을주민과 함께 만들어진 장곡노루마루 마을축제

는 모두에게 특별한 경험이었다. 장곡초, 진말초, 응곡중, 장곡중, 장곡고가 모여서 축제일정을 확정하고 중학생이 중심이 되어 마을축제 기획단을 구성했다. 이 과정에서 마을학교, 장곡마을 아파트 대표자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노인회, 부녀회, 새마을 봉사단, 각 학교 학부모회, 동사무소를 비롯한 마을의 모든 주민단체가 아이들의 축제 준비를 도왔다. 박 교장은 "축제 장소, 프로그램을 두고 아이들과 어른들이 팽팽하게 대립하기도 했지만 토론 끝에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아이들은 마을축제를 통해서 정형화된 학교, 교실에서 배울 수 없는 문제해결력, 의사소통능력 등을 배우고 마을이 삶의 일부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고 소외했다.

어디 그뿐인가? 시흥시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학교 안 체험교실(목공실습실)은 정규일과 중에는 아이들의 수업을 하고 저녁 7시부터는 마을주민에게 개방되어 마을주민의 목공소가 된다. 마을 어르신이 아이들의 '사람책'이 되는 휴먼 라이브러리는 이미 아이들의 마음속에 뿌리내렸다. 한창 공사 중인 '어울림 공간'(교육협동조합이 운영하는 학교 안 카페テリア)도 청년 창업가 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아이들이 실내 인테리어와 야외 카페를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아이들은 마을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마을의 주인으로 쑥쑥 성장하고 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마을교육공동체는 딱 이럴 때 쓰는 말이다. ㉞

체험 중심의 학생 안전교육

시도교육청 우수사례

학생들이 하루 일과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 학교. 학교는 배움의 터전이면서 동시에 생활 그 자체이다. 때문에 학교의 안전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의 교육현장에서는 어떻게 안전교육이 이뤄지고 있을까? 시도교육청의 우수사례들을 모아봤다.

강원도교육청

“직접 해봐야 더 잘 알 수 있어요”



“아이들이 준비했다고 해서 어설프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놀랐습니다.” 정선소방서 홍병화 구조대장이 말하며 웃었다. 지난해 정선초등학교와 함께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에 참여한 소감이다. 정선초는 지난해 교육부에서 지정한 안전교육시범학교를 운영하며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재난 대비 훈련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최근 늘어난 지진에 대비해 학교에서 어떻게 대피하면 좋은지, 대피소는 어디인지 등을 직접 매뉴얼로 만들었다. 수업시간을 활용해 토론하며 안전수칙을 만들고 인명구조팀, 상황보고팀 등으로 나눠 실제 상황에 대비했다. 토론에는 소방서 관계자들도 참여했다.

정호양 교사는 “처음에는 아이들이 재난 훈련을 기획한다고 하니 소방서 분들이 난감해하였다. 취지를 설명하고, ‘직접 해봐야지 더 잘 알지 않겠나.’고 이야기하니 이해해 주고 적극 참여해주었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는 재난 대비 훈련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정호양 교사는 “위험성에 대해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전에는 소방훈련을 해도 아이들이 별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지진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게 됐다, 어떻게 대피하면 좋은지 알게 됐다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안전의식을 키워주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 기쁩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자동심장충격기

모든 중1학생 심폐소생술과 AED 사용법 배운다



부산 해강고등학교 체육시간. 축구를 하던 준호(가명) 학생이 갑자기 바닥에 ‘퍽’하고 쓰러졌다. 현장에 있던 체육교사가 준호의 의식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숨을 쉬지 않고 의식도 없는 상태였다. 심정지 상태라고 파악한 이 교사는 즉시 주위에 있던 학생들에게 119신고와 보건교사 호출을 지시한 뒤 가슴압박 등 심폐소생술로 응급조치를 실시했다.

학생들의 호출을 받고 운동장에 도착한 보건교사는 긴박한 상황을 인지하고 체육교사에게 계속 심폐소생술을 해 줄 것을 요청한 후 바로 자동심장충격기(AED)를 가져왔다. 보건교사는 곧바로 자동제세동을 실시하였고 쓰러졌던 준호의 의식도 서서히 돌아왔다. 이후 학교에 도착한 119구급대원에 의해 2차 자동제세동이 이뤄졌고 그 결과 준호는 현장에서 혈압과 맥박,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학생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1차 제세동이 이뤄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4분. 말 그대로 ‘4분의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이었다.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 학교에서 실시해 온 심폐소생술 교육과 응급대처 요령이 4분의 골든타임을 지켜내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부산 성심보건교과 교사와 학생들은 현장체험학습 도중 심장마비로 쓰러진 학생의 생명을 구하기도 했다.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이동 중에 지하철역에서 지용(가명) 학생이 갑자기 쓰러졌던 것. 함께 있던 담임교사와 보건교

사가 의식과 맥박, 호흡을 확인한 결과, 의식은 없었으며 맥박수가 떨어져 교대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두 교사는 주위 학생들에게 119신고와 자동심장충격기(AED)를 가져올 것을 요청했다. 같은 반 친구들이 119신고를 하고, 역무실에 뛰어가 역무원과 함께 자동심장충격기를 가져왔다.

두 교사는 교대로 인공호흡과 가슴압박을 하고, 1차 자동제세동을 실시했다. 이어 도착한 119구급대원이 2차 자동제세동과 심폐소생술을 실시함으로써 지용이는 현장에서 의식을 회복했다.

김현정 보건교사는 “학생들의 외침을 듣고 달려가 쓰러진 학생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평소 익혀 둔 응급조치를 했다.”며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학생과 교사들이 함께 대처함으로써 쓰러진 학생을 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부산지역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올해 한층 체계화된 실습중심의 응급처치교육을 배운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학생들이 위급 상황에서 가족과 친구, 이웃을 구할 수 있도록 올해 관내 모든 중학교(170개교) 1학년 학생 2만 4,60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실시한다.

지난해까지 학교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응급처치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부산시교육청은 동의과학대학교 BLS교육원과 함께 자유학기제 및 자유학년제와 연계해 응급처치교육을 추진한다.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전문 강사가 학교를 방문해 실습 2시간, 이론 1시간 등 총 3시간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학생 3명이 실습용 마네킨과 자동심장충격기 각 1대를 이용해 정확한 응급처치법을 몸소 익힌다.

실습 중심의 응급처치교육은 학생들이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인명 구조활동 능력을 키워주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안전행복덮개’로 안전한 등하굣길



“여기는 스쿨존! 30km 미만으로 서행해 주세요.”
조치원대동초 학생들의 등하굣길. 삼삼오오 등하굣길에 오르는 학생들의 밝은 형광색 가방이 유독 눈길을 모은다. 운전자의 눈높이에서도 밝은 형광색 가방 덮개는 학생들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가방 덮개에 그려진 ‘30km

미만’ 운행 표지판은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킨다. 이처럼 ‘안전행복덮개’가 초등 저학년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에 일조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통행을 위해 조치원대동초를 비롯해 읍·면지역 19개교와 도담초 등 20개교에 안전행복덮개 1,054개를 배포했다. 가방 외부에 씌우는 ‘안전행복덮개’는 밝은 형광색 바탕에 30km 미만 운행 표지판이 그려져 있다. ‘안전행복덮개’는 스쿨존 내에서 운전자들의 감속 운행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세종시교육청은 “학생들이 학교 통학로 인근 공사 차량의 빈번한 운행과 과속 등에 상시 노출되어 있어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했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안전 몸으로 배우고 마음에 새겨요”

교실 안에서 눈으로만 안전을 배운다면 실제 위기 상황에서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안전교육을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안전체험버스와 안전체험의 날을 운영 중이다.

학생들은 안전체험버스 안에 구비된 지진 체험장, 심폐소생술 실습장, 화재 체험장 등을 돌면서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요령을 몸으로 배우고 마음에 새긴다. 지난해 안전체험버스를 이용한 학생은 대전시 관내 135개교, 13,000여 명에 달한다.

더불어 대전시교육청은 2016년부터 안전 체험의 날을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안전교육 7대 영역과 관련된

체험 부스가 33개소 운영되었으며, 학생 3,200여 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체험 부스를 돌면서 매듭 묶기, 호신술, 심폐소생술, 승강기 안전 수칙 등을 몸소 체득했다.

대전시교육청은 “당일치기로 진행된 지난해와 달리 올해 안전 체험의 날에는 4월 12-13일 양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보다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안전을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부스도 40개소 이상 설치 운영된다.”고 말했다.

충청남도교육청

재난송으로 위급상황 대처능력 키운다

버스에 갇혔을 때 울지 말고 생각해요 ♪
찾아요 찾아요 클랙슨을 찾아요
버스에 갇혔을 때 두 가지만 기억해요 ♪
찾아요 눌러요 클랙슨을 뱅뱅뱅
어른이 올 때까지 클랙슨을 눌러요 ♪



충청남도교육청은 재난 상황에서 유아 및 어린이들의 대처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직·간접 체험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통학버스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전국 최초로 안전송을 보급하였다.

지난해 홍성초 학생들은 다양한 재난 유형 중 화재를 대비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시나리오를 직접 작성하며 매뉴얼을 학교 실정에 맞게 작성하고, 긴급 대피 안전지도를 제작하여 모의훈련을 통하여 스스로 깨우치는 경험을 했다.

학생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시설 투자에도 앞장선 바, 2015년 도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양방향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교육시설에는 신속한 대피를 위한 옥외피난 미끄럼틀을 설치하였으며 이를 이용해 대피하는 적응훈련도 하였다.

또한 보다 체계적인 재난안전훈련을 위하여 공주 충청남도학생수련 부지에 14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충청남도학생안전체험관을 2018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많이 발생하는 유치원 통학버스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어린 유아들이 통학버스에 갇혔을 때 운전석 클랙슨을 눌러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게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송을 제작·보급하였다.

충남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에 맞서 시설 개선 및 다양한 훈련을 통하여 365일 학생들이 안전하고 신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㉞



유치원 통학버스 안전송

교육시설 안전대진단으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



1. 학교 소방시설 점검 (사진제공=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 학교 과학실 내 실험도구 및 약품 등을 점검하는 모습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도록 세밀하게 점검하여 안전을 미연에 방지한다.’

해빙기 안전점검과 병행하여 재해취약시설과 위험시설을 집중 점검하는 『2018 교육부 국가안전대진단』을 3월 30일까지 진행한다.

교육부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학생들이 사용하는 모든 건물과 해빙기 취약시설인 축대·옹벽, 대학실험실, 학교 내 어린이 놀이시설 등 시·도교육청 7만 2126개, 대학 1만 3641개 시설 등 약 8만 5천개의 교육기관 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기숙사, 합숙소 등 화재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특별 소방점검과 함께 야간화재 대피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대진단에 차관을 단장으로 하여 교육안전정보국장을 부단장으로 임명하고 각 소관 부서별로는 6개팀으로 나눠 운영한다. 교육부는 안전대진단에 앞서 지난 1월, 사전 설명회를 열고 점검의 주체인 교육부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국립대병원 등 관계자에게 안전대진단 준비 단계부터 철저히 대비함으로써 점검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였다.



화재취약시설과 위험시설 집중 점검

올해는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1~3단계까지는 소속기관 직원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해 직접 점검하며, 4단계에는 전문기관의 정밀점검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즉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장, 행정실장 등 학교 시설물 사용자가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이 발견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전문 공무원이 확인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재해취약시설로 지정된 건물을 비롯해 축대·옹벽·절개사면, 포항지역 지진 피해학교 110교 중 구조체 피해학교 6교에 대해서는 시설전문 공무원과 학부모·학생 등 교육수요자, 구조·소방·전기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결과 구조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 전문기관에 정밀점검을 의뢰하여 위험시설을 조기에 발견하여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국민의 안전생활 문화 정착 및 안전점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안전신문고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에 각종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 학부모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㉔



! 포항지역 내진보강 2018년까지 완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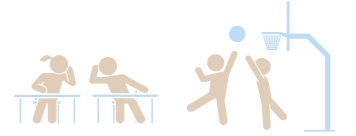
교육부는 교육시설 안전대진단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중간 점검으로 포항 지진피해 복구현황 및 석면제거 학교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다.

지난 2월 11일 경북 포항지역에 4.6규모의 여진이 발생함에 피해학교 51개교에 대하여 2월 11~12일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피해지역의 교육시설을 신속하게 복구 지원함으로써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16개 학교에 대해서는 관계 구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비구조체 피해학교의 경우 낙하물, 탈락된 시설물 등에 대한 현장 안전조치와 접근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교육부는 지진위험지역인 포항지역의 학교시설에 대한 현재 내진보강율은 4.3%이나 투자를 확대하여 전체 학교에 대한 내진보강을 2018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급별	전체 동수	내진대상		내진확보건물(현재)		현재 추진중		향후 추진완료(2018완료)		비고
		대상동수	대상율(%)	동수	내진율누계(%)	동수	내진율누계(%)	동수	내진율누계(%)	
유초중고	629	324	51.5	138	42.6	76	66.0	110	100	
특수	5	4	80.0	1	25.0	2	75.0	1	100	
합계	634	328	51.7	139	42.4	78	66.2	111	100.0	

* '18년 예산 26,066백만 원



2018 학교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

학교폭력 제로를 향한 첫걸음!



대전 판암초 자연탐사 프로젝트

대전 판암초등학교(교장 송선희) 학생들은 수시로 인근지역의 숲, 공원을 거닐며 지속적으로 식물을 관찰하는 등 자연과 연계한 어울림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있다. 도서관, 경찰서 등 동네 탐사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도 조금씩 익히고 있다. 어울림 프로그램을 통해 따뜻한 감정을 느끼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는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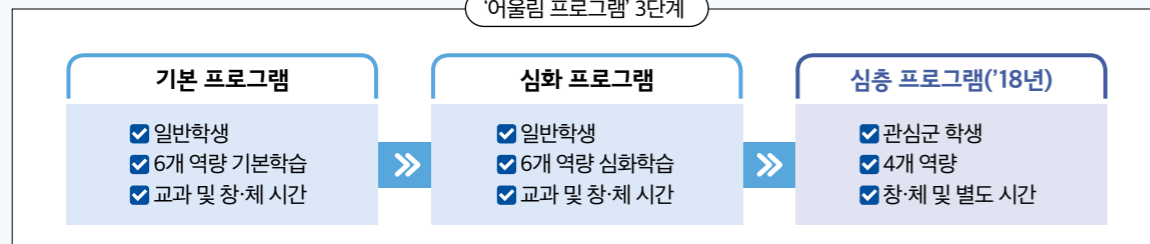
2016~2017년 어울림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판암초는 학교, 학부모, 교사, 학교환경 등과 관련해 설문조사와 가정환경 분석, 상담과 관찰을 진행했다. 그 결과 학생들에

게 대화와 소통, 공동체 활동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나와 만나는 여행'을 주제로 자아존중감을 키우도록 하고 '즐거운 어울림소통'을 주제로 해 이웃이나 가족에 대한 관심을 키우도록 했다. 미니올림픽이나 자연 속 전시회, 우리 동네 탐사 등의 활동을 통해 어울림 있는 학교 만들기 프로그램도 병행했다. 2년 후 학교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조근에 연구부장은 "어울림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의 표정이 무척 밝아졌다. 비속어를 쓰는 아이들이 크게 줄었고 배려하는 문화가 싹튼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며 "평소 신경질적이었던 아이들이 친구들을 이해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도 엿볼 수 있었다."고 말한다.

실제로 판암초는 어울림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학부모-학생 간의 소통이 크게 늘었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교사에게 고민을 상담하는 학생이 21% 늘었으며, 학생-학부모 간의 소통도 크게 개선됐다. 79%의 학생이 부모와의 대화에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했다. 무엇보다도 어울림 프로그램은 교우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87%의 학생들이 친구들과의 어울림에 어려움이 없다고 답했다.

'어울림 프로그램' 3단계



1.2. 대전 판암초 공감 가방 만들기 및 소통놀이



전국 9,000개교에 어울림 프로그램 확대 지원

대전 판암초의 사례처럼 어울림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예방에 효과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에 효과가 높은 어울림 프로그램을 올해 전체학교 대비 75%에 해당하는 9,000개교에 확대 지원한다. 또한 또래조정, 또래상담, 문·예·체 교육뿐 아니라, 평화교육, 회복적 생활교육 등 지역특성에 맞춘 프로그램을 선택·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최근 '2018 학교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특히 학교폭력에 대한 선제적 차원에서 학생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밀도 높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핵심으로 다루고 있다.

우선, 어울림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을 기존 2단계(기본·심화)에서 선택적 예방교육이 필요한 대상으로 확대하고 기본·심화·심층 3단계로 구조화하여 교과연계 어울림 프로그램 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다양화한다.

또한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또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 주도의 건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또래활동 기본 프로그램으로 '친구 이해', '경청', '상호소통(대화)'을, '19년에는 또래활동 심화 프로그램으로 '상호조정', '문제 해결', '부정적 경험 회복'을 각각 초·중·고용으로 3종씩 개발할 예정이다.

언어폭력, 사이버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언어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긍정적 자아표현', '공감', '감정표현', '갈등해결을 위한 대화법', 'SNS에서의 바른 언어사용'에 대한 내용을 담은 수업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신설

특히 사이버폭력 예방과 상담, 치유를 위한 현장 상담 지원단을 시범 운영한다. 올해 약 40명 규모로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남, 제주의 9개 시·도 교육청에서 시범 운영한다. 또한 여성가족부와 협업을 통해 초등학교 대상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사업'을 지원한다. '15년 415가족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올해 875가족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부모의 영향력이 미치는 초등학교생에게 선제적으로 예방 조치하고 과의존 학생들에 대한 치유도 강화한다.

그밖에도 예방교육 자료를 수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연구지원센터(stopbullying.kedi.re.kr), 에듀넷 티-클리어(정보윤리교육), 학생언어문화개선(kfta.korea.com) 등 예방교육 누리집을 연계 운영한다.

또한 교육부는 시·도 단위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을 신설한다.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 전문가 등 현장 교원 중심으로 구성된 컨설팅단이 시·도별, 단위학교별로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이끌어 나간다. ㉠



안전은 모든 교육활동의 감초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입니다.

새봄의 벅찬 기운이 온 산과 들에 가득 차오르는 3월에 <행복한 교육> 독자 여러분과 첫 인사를 나누니 금강 언덕에 와 부딪는 봄물처럼 설레는군요. 독자 여러분의 일상 또한 늘 봄빛처럼 환하고 파스하길 바랍니다.

국민의 열망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도 다음 달이면 만 일년이 되고, 제가 교육부를 맡은 지도 열 달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저는 잘못된 관행과 정책을 고치고, 뒤틀렸던 제도와 행정을 바로잡으면서 책임성과 공공성에 바탕을 둔 교육정책과 교육복지의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열 달이 되니 그 실체를 낱아, 아, 정말 교육이, 우리 삶이 바뀌고 있구나 하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정책이 국민의 삶에 스며들 수 있도록 더 한층 힘을 내렵니다.

취임 이후 각계각층의 분들을 만나고 국민 여론을 살펴보면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은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입니다. 이것은 제가 80년대 교육 민주화 운동을 할 때나 교육감 시절 때도 마찬가지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육부의 지향도 국민의 바람과 같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행복해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교실혁명, 안전하고 평화로운 교육환경을 이뤘어야 합니다.

경을 이뤄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곧 4월입니다. 충격과 슬픔, 분노를 안겨준 세월호의 비극을 또렷이 기억해야 하는 4월입니다. 기억은 살아남은 자의 윤리이며 살아갈 후세를 위한 기획의 청사진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일깨우는 등애와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 역량을 키우고 재난에 대응하는 안전 리더십을 새로이 세우는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몇 가지 까닭으로 저는 <김상곤의 교육편지> 첫 번째 주제를 ‘안전’, 더 정확히는 ‘안전사고’로 정했습니다. 안전사고란 말 그대로 ‘안전 교육의 미비, 또는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교육을 하고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란 뜻이지요. 그러므로 안전사고 대응 정책은 두 가지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하나는 안전 역량을 키우는 것. 또 하나는 안전 리더십을 바로 세우는 것이 그것입니다.

안전 역량이란 무엇이고 그것은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우리는 평소에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부딪히곤 합니다. 이때, 당황하지 않고 현장에서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안전 역량입니다. 사고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만 불가피한 사고 또한 발생하지요. 이때는 신속한 대응이 최선인데, 선생님이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안전 역량을 키우는 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아이들은 하루 중 학교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런 아이들과 지속적으로 돈독하게 교육적·인간적 관계를 쌓는 분들이 선생님이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위기 상황과 재난의 양상이 학교 밖의 그것과 꼭 같지는 않겠지만, 초기 대응 방법이나 처리 단계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스스로 각종의 안전사고와 그에 대한 대응방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이나 훈련을 할 때도 ‘설마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하는 형식적 치레로 여기는 때도 있지요. 그러나 막상 안전사고가 닥치면 당황하면서 문제를 최소화할 황금시간을 헛되이 놓치고 사후약방문식 종합 대책을 반복하거나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하는 데 그쳤던 적도 많았습니다.

안전 정책의 필요와 실행 방안이 현장과 충분히 공유되도록 교육부의 매뉴얼부터 새롭게 정비하겠습니다. 다양한 위기상황에서 학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사고 수습은 물론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담은 매뉴얼로 교사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행동 요령 또한 실행 중심으로 구체화하여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안전 리더십을 세우는 일입니다. 막상 사고가 일어났을 때,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지난해 11월 15일 포항 일대에서는 5.4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수능 전날이었지요. 수험생들은 시험을 치를 학교를 살펴보고, 선생님들은 감독관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지진 발생 이후, 교육부는 관련 부처와 함께 지진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점검하면서 여진 가능성과 아이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수능 하루 전에 수능 일주일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곧이어, 고사장 안전을 세심히 점검하여 고사장 4곳을 다른 고사장으로 대체하였고, 다른 고사장에서도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12곳의 임시 고사장을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22일부터 수능이 치러진 23일까지 포항교육지원청에 상주하며 수능이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발생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하며, 수능 전 과정을 총괄·관리했습니다.

무엇보다 수능 도중에 지진이 발생할 경우, 대피를 결정한 교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혹 있을지도 모를 소송 비용과 법률 지원 등도 정부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현장의 교사가 신속한 결정을 내릴 여건을 만든 것이지요. 이제까지 우리 사회는 학교 안에서 벌어진 사고의 책임을 주로 학교 구성원에게 물어왔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책임에서 일단 벗어나고 보자는 형식적이고 방어적인 교육을 초래했습니다. 책임에 대한 압력이 신속한 대응을 막은 셈이지요. 이 일은 제게 안전 리더십을 익히는 소중한 기회가 됐습니다.

혁신교육의 배움은 교실과 교과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만물이 기운생동하는 봄입니다.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뤄질 텐데요, 모든 활동의 바탕에는 안전이 고려돼야 합니다. ‘약방에 감초’라는 말이 있지요? 어떤 일든 늘 있거나 빠짐없이 있어야 할 것을 말합니다. 안전이 그렇지 않을까요? 저 김상곤은 우리 아이들의 즐거운 배움에 있는 교육에 늘 함께하고, 그러한 우리 교육활동에 안전이 빠짐없이 작동하도록 더 세심히 살펴보고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안전한 나라에서 아이들이 행복하고 국민이 믿음을 주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월의 편지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②



한글교육 공교육이 책임진다 '한글교육 책임제'



대한민국 부모들은 아이가 다섯 살만 되면 본격적으로 한글교육을 고민한다. 이에 발맞춰 사교육업체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더 늦기 전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한글 학습을 제안한다.

유아시기 한글을 익히는 인지 학습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상식과는 다르게 대한민국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그 이유는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있다. 한글을 떼고 가지 않으면 학교수업을 따라갈 수 없는 현실, 모국어를 공교육에서 책임져주지 않는 현실, 심하게는 왜 배우지 않고 왔냐는 핀잔을 들어야만 하는 현실이다.

한글을 떼고 오지 못하는 학생들은 입학 초 적응의 어려움만 겪는 것이 아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읽기 부진이 초등학교 고학년 때까지 이어진다. 유아시기 과도한 한글 사교육을 줄이고, 모국어인 한글만큼은 공교육이 책임져야 한다는 책무성! 그래서 강원도교육청은 '한글교육 책임제'를 시작했다.

한글 선행학습을 전제로 한 받아쓰기와 알림장 쓰기를 멈추고, 모음과 자음부터 체계적으로 가르친다. 어려운 수학교과서는 선생님이 천천히 설명해주고, 천천히 배우는 아이들은 원인을 진단하고 맞춤 지원을 강화한다.

누군가 '삶의 기초적인 도구인 한글을 잘 가르쳐주지 않으면서 학교는 무엇을 했냐'고 물을 때, 우리는 부끄러운 대답을 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 첫 수학문화관에서 수학의 즐거움을 찾다!

정책



3월 14일 파이(π)의 날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수학문화관을 개관하였다.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창원중앙중학교 별관에 위치하고 있는 경남수학문화관은 별관 3층 15개 교실을 리모델링하고, 외부 증축관(750m)을 신설하는 등 경남의 학생, 학부모 시민들이 체험·탐구 중심의 선진형 교육을 경험하고 수업 혁신을 위한 교사전 문성 제고에 기여 할 수 있는 수학교육 전문기관으로 구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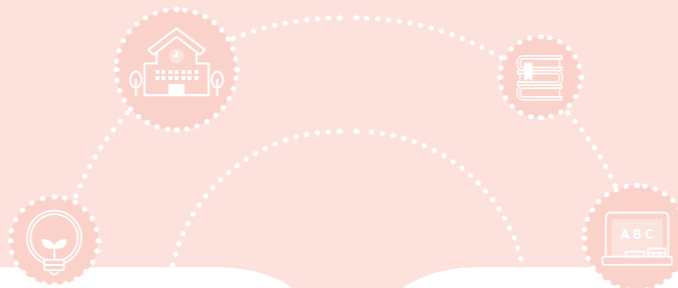
경남수학문화관은 △대형 수학콘텐츠를 통해 놀이형 체험활동을 하며 수학에 대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수학어드벤처관' △여러 가지 수학 콘텐츠를 이용하여 수학적인 호기심과 동기를 유발하는 '체험탐구관' △음료를 마시며 수학 관련 책을 읽고 보드게임 등을 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수북(數book)카페' △코딩과 프로그래밍 교육에 있어 수학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

는 'SW교육체험실' △학생들의 수학 성적과 적성 및 진로에 대한 고민 상담과 수학 자신감 회복을 도와주는 '수학클리닉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으로는 △센터에 방문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수학문화 속으로 '얼썩(數)좋다' △가족과 함께하는 '주말 수학데이' △방학 기간을 이용한 '체험수학캠프' △수학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위한 수학클리닉 △변화하는 수학교육에 대한 소통과 수학 문화 대중화에 기여할 '학부모 수학아카데미' △교원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체험수학 연수' 등을 운영한다.

경남교육청은 "대한민국 최초 수학문화관인 경남수학문화관은 수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저변 확산의 허브가 될 것이며 나아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수학체험센터 구축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격증이 우수한 교장을 담보할 수 있는가?



정보

교장공모제는 자격승진제도라는 골격을 유지하면서, 역량 있는 교사를 공모 과정을 통해 자격증과 관계없이 교장으로 임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본래 교장공모제 중 내부형 공모제는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일정 경력의 교사들에게 학교 관리자의 문호를 개방하여 교직사회를 활기차게 만들고 학교교육을 혁신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확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교장공모제의 취지가 승진 교장제와 비교하여 공모라는 과정을 통해 학교구성원이 원하는 우수한 교장을 선발하여 개방적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격증의 유무에 초점을 맞추고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가 교장이 되는 것을 무자격 교사가 교장이 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펴면서, 교장공모제의 축소 또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교장공모제, 개방적 리더십 발휘 가능

물론 교장 자격증을 취득하기까지 과정을 모두 폼뻐하거나 교장 자격증을 가진 교사 모두를 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자질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교장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직경력을 비롯해 부장교사, 교감 등의 경험을 하면서 중간 리더로서의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증이 없는 교사들이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가 확대되어야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학교교육을 혁신하는데 있어서 교장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미치기 때문에 내부형 공모제 교장이 확대되어야 한다. 현행법에서 교장은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교무통할에 관한 직무, 소속 교직원 지도 감독의 직무, 학생교육에 관한 직무를 고유의 권한으로 갖는다. 그런데 학교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교무통괄 권한, 학교교육계획의 수립 및 집행, 관리, 학교 단위 전체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관리, 시설, 재무, 문서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학교구성원으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는 수평적 리더십이며, 학교장의 교육철학과 비전이 학교구성원과의 공감대를 이루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승진제 교장보다 내부형 공모제 교장이 확대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내부형 공모제 교장은 행정가로서의 지도성보다 교육자로서의

지도성을 발휘하기에 적합하다. 수석교사제의 도입 취지처럼 승진제 교장은 관리자 또는 행정가로서 이미지가 강하였다. 그래서 자격승진제도 아래서 교장은 교육청으로부터 내려오는 지시사항의 이행에 치우친 학교경영을 하였다. 게다가 학교장 리더십의 핵심이 되는 학교교육과정과 수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 부분에 가장 취약한 리더십을 보였기 때문에 학교가 교육과정 중심으로 운영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내부형 공모제 교장은 학교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학교혁신을 통한 특성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교육활동을 개선하려고 노력했던 교사가 교장이 되도록 함으로써 교장이 된 이후에도 교육과정과 수업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제도이다.

변화된 리더십 구현에 더 적합하다

마지막으로 내부형 공모제를 통해 임용되는 교장이 사회의 변화와 함께 변화된 리더십을 구현하기에 적합하다. 그동안 자격승진제 아래서 교장이

되기위해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 자체가 부끄러운 관리자가 되는 과정으로 인식되었다. 승진점수를 따기 위해 비민주적인 문화를 체득해야만 승진할 수 있었고 그러한 승진문화가 학교 의사결정 시스템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과정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지나친 간섭이 지배하게 되고, 명령-지시 관계로 학교가 운영되면서 권위주의적 문화가 양산되었다. 또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공문을 놓치면 무능한 교사가 되는 등의 행정주의가 만연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장이 된 교장은 교사가 오직 수업과 아이들의 생활지도에 매진할 수 있게 해주지 못했다. 반면에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직경력 15년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형 공모제의 경우, 교장이 되기 직전까지 가르치는 활동을 중심이 두면서, 학교가 교육과정 중심이 되는데 집중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학교장의 리더십도 학교관리가 아닌 교육과정 운영에 중심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공모라는 과정을 통해 리더십을 학교구성원들과 공유하면서, 구성원들이 민주적 의사결정을 신뢰하게 되고, 학교교육의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였다. 이러

한 내부형 공모제 교장의 헌신과 학교 구성원의 강력한 지지는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켰다. 그래서 비율이 제한되어 있지만,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다수의 자격증을 가지고 교장이 된 분들에게 위협이 되었다.

그런데 교장공모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궁극적으로 학교교육을 혁신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하고 기존의 자격증을 가진 승진교장제만이 옳다고 말하면서, 교장 자격증을 가진 교감이 교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학교교육의 발전을 위해 다른 제도를 예외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며,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학교가 정치적 장이 되어 갈등만 양산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교가 특정 진영의 교사를 교장으로 임용시키려고 하면서, 공모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는 것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이다.

하지만 교장공모제의 무분별한 시행으로 교장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자질을 검증받지 못한 무자격 교장의 양산이 예상된다. 또한 교장을 공

모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교사 간 분열과 갈등의 증대로 혼란과 후유증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에 경도된 해석이다.

더 좋은 학교를 만드는 촉매제 역할

물론 나는 자격증을 통해 교장이 되는 승진제도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현행 교장, 교감 자격승진체제를 유지하면서, 이 안에서 근무평정을 비롯한 평가의 공정성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시행 중인 개방형 직제처럼 일부를 자격증이 없지만 유능하며 비전을 가진 경력 교사에게 교장의 문호를 개방하여, 학교혁신을 위해 다양한 제도가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누구나 인정하듯이 학교장이 학교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과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장공모제를 확대하여 교장 자격을 가지고 승진한 교장과 자격증 없이 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 사이에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더 좋은 학교를 만드는 데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7

자격증이 없어야 유능한 교장이 될 수 있는가?



현 정부는 자율학교에 한해 15%이내에서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직경력 15년 이상의 교사가 교장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교장공모제의 제한조건을 폐지하고 공모제를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확대하려는 이유는 학교 구성원이 유능한 교장을 자격증과 관계없이 선발하게 하는 제도로 학교민주주의와 교육혁신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에 걸친 전문성 향상과정 필요

그러나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우수한 교장의 임용이 아니라, 자격증 유무의 문제로 접근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본다. 자격증 소지 여부를 떠나서 교장공모제 자체는 개방적 리더십의 구현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보다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학교장에게 필요한 역량이 공모과정을 통해 길러진다는 주장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현행법에서 교장은 교무를 통괄하며, 교사를 지도감독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갖는다. 이들이 학교운영 전반인 교무를 통괄하고, 교사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면서 학교교육활동을 책

임지는 지도감독의 권한을 쌓고, 학교를 운영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에 걸친 전문성 향상과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교장공모제는 공모제 전까지 교직 경력 이외에 연구부장, 교무부장, 교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중간 리더십을 경험하는 과정 없이 교사로서 경력만으로 바로 교장에 공모하게 된다. 이러한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는 공모의 방법으로 우수한 교장의 질을 시스템적으로 담보할 수 없다. 오히려 교장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교사가 교감, 교장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합리적 평정제도를 마련하여, 교장이 되기 위한 전문성을 신장하도록 하는 교장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현행 교사 양성, 임용과정처럼 4년간의 교사양성과정을 개혁하지 않고, 짧은 기간에 실시하는 3차례의 임용교사로 우수한 교사를 선발한다는 주장이 주객이 전도된 것과 같은 이유에서 교장공모제를 통해 우수한 교장을 선발한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가르치는 일과 행정은 인과관계 없어

다음으로 가르치는 일의 전문성과 행정의 전문성이 상관관계를 갖지만,

인과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다시 말해 서로 다른 영역의 전문성이라는 사실을 전제할 때, 교장공모제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교장공모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잘 가르치는 교사가 교장이 되도록 하는 제도가 내부형 공모제라고 말하지만, 잘 가르치는 교사가 여러 이해관계를 가진 주체들의 의견을 조율하면서 학교를 운영하고, 교무를 통괄하고, 교사를 감독하는 역량을 자동적으로 구비했다고 볼 이유는 없다. 특히 최근 교사는 가르치는 일과 생활지도에 집중하게 하고, 나머지 행정업무는 줄여주자는 업무정상화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가르치기만 하다가, 가르치는 일 이외의 교육행정, 재정, 시설안전, 급식 등 다양한 교육행정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그동안 교장과 같은 관리직을 교사직제로부터 분리시키자는 의견도 제기되었는데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이러한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교장공모제가 또 다른 교장 승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장공모제 중에서 교장 자격증이 필요 없는 내부형 공모제의 경우에도 일단 교장이 되면, 교장

임명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수여되고, 이 때부터는 교장 자격증을 사후적으로 갖게 된다. 그리고 내부형 공모제로 교장이 된 자격증이 없는 교사는 교장 연임 연한인 8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다시 교사로 돌아올 수 없다. 이러한 현실은 일선 교사들에게 공모제 역시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가 교장 임용, 교장 연임 또는 교육청의 보다 상위직으로의 이동과 같이 새로운 교장 승진 트랙으로 인식될 여지를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장 자격증이 교장의 질을 담보하지 않고, 유능한 교사가 교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면, 교장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던지, 자격증 자체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과도스스한 교장의 권한을 이야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능한 교장의 임용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이율배반적인 것이다.

교장의 법적 권한 분산이 더 중요

마지막으로 공모제의 확대 논리는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교사 자격증의 개방에 대한 논리를 강화할 수 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융합교육, 장소에 구속되지 않는 다양한 배움이 강조되

면서 교직개방의 논리가 강화되고 있다. 이는 학생의 다양한 배움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교대, 사대를 통해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폐쇄적이고, 교사 자격증도 교사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므로 과감하게 교직을 개방해야 한다는 논리를 강화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실제로 오바마 정권 시기에 만들어진 해밀턴 프로젝트에서는 훌륭한 교직수행에서 교사양성과정, 교사 자격증이 별 영향을 미치지 않고, 현직연수가 교사 전문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한 바 있다. 그래서 보다 중요한 것은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확대가 아니라 교장의 법적 권한을 분산하고, 승진제 교장제도에서 교장 아카데미, 연수제도 정비, 자격기준 강화 등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밖에도 교장공모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학교 구성원이 학교장을 직접 선택함으로써 학교민주주의가 보다 심화된다는 측면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만,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민주적 통제와 함께 교사의 전문적 통제도 중요하다. 다시 말해 병원이 환자의 건강과 병의 치료를 위해 의사의 전문성이 폭넓

게 보장되어야 하듯이, 학교에서도 학생의 성장과 배움을 위해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과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짧은 공모기간은 교사가 자신의 교육철학이나 비전 등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가시적인 정책을 검증받는 과정만 거치게 된다. 따라서 교무를 통괄하고, 교사를 지원하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리더십을 함양하지 못하게 되어, 교사들의 진지한 교육활동이 민주적 통제라는 이유로 학부모들의 방해로 받게 될 수 있다.

교장 자격증, 가치 절하는 심각한 문제

결론적으로 내부형 공모제의 확대를 주장하면서 교장 자격증을 가치 절하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자격증이 교장으로서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지, 자격증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해결책은 아니라고 본다. 이러한 해결책을 취할 경우, 부메랑이 되어 교사 자격증에 대한 신뢰도 감소시켜 전체적으로 교직의 전문성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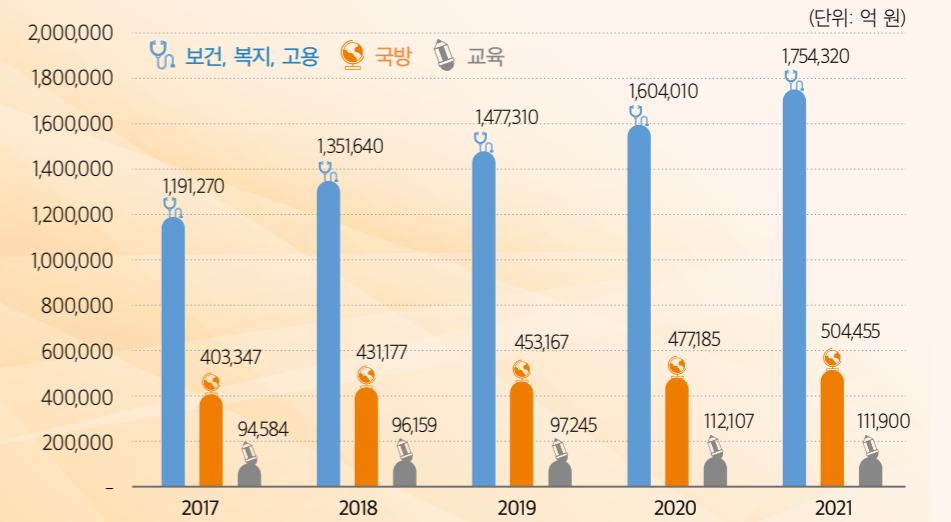
고등교육 재정과 공영형 사립대

고등교육 재정 확보의 전망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고등교육 체제 개편 정책은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핵심적 원리로 하여 세부적으로 (1) 거점 국립대가 명문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 (2) '공영형 사립대학' 전환 및 육성, (3) 국공립 전문대학 및 공영형 전문대학 육성, (4) 지역 소규모 강소대학 육성 지원, (5) 중장기적으로 국공립대 공동 운영 체제 등 대학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대학서열화 완화 및 대학 경쟁력 강화 등의 방안으로 요약된다.

제안된 대학 구조개혁 방안의 전제인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기본 원칙이 단순한 이념적 차원에서의 논쟁을 넘어 정책적 측면에서 실효성을 가지려면 그에 합당한 재원이 조달되어야 한다. 2018년 교육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고등교육 분야 총 예산액은 2017년 9조 4,253억 원에서 2018년 9조 4,987억 원으로 전년대비 약 0.8%만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예산액 중 약 4조 이상이 국가장학금 및 장학재단 출연금을 차지하므로 실제 대학 체제 개편을 위해 투입되는 금액은 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추정된다(변기용·송인영, 2018).

국방비, 사회복지, 교육 예산추계 (2017~2021)



기획재정부의 2017~2021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살펴봐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고등교육 예산은 앞서 말한 고등교육 공공성 확대를 위한 막대한 재정 투자 수요에도 불구하고 동 기간 동안 1조 7천억 원 증가(2017년 대비 19%, 2017년 9조 4천억 원 => 2021년 11조 2천억 원)에 그치고 있다. 동 기간 전체 교육 부문의 예산은 2017년 57조 4천억 원에서 2021년 75조 3천억 원으로 증가하여 17조 9천억 원이 증가(2017년 대비 31% 증가)하지만, 교육 부문 내부에서 고등교육 부문의 동기간 동안 예산 증가율은 4.29%(유초중등 7.54%, 평생직업 8.18%, 교육일반 6.98%)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고등교육 부문은 먼저 교육계 외부적인 어려움과 함께 교육계 내부적으로도 재정 확보와 관련하여 결코 만만치 않은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등교육 재정, 지자체의 재정적 기여 필요

문재인 정부는 정의로운 사회와 형평성을 강조하는 정권의 이념적 지향성에 비추어 볼 때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육 및 의료, 노인 복지 수요, 최저 임금 인상 등 복지 투자 수요 확대를 위한 투자가 예정되어 있어(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교육재정, 특히 고등교육 재정 확보 환경은 결코 우호적이지 않을 것임은 이미 예측(변기용 외, 2017b)되어 온 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등교육 부문에 많은 예산이 추가로 투자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 공공성 확대 정책'의 타당성은 어떻게 확보해야 할까? 고등교육 부문에 대한 추가적 재정 확보를 위해 교육계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지역 강소대학 육성이나, 대부분 지역에 위치한 대학을 대상으로 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영형 사립대학/전문대학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는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전제로 국고 재원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재정적 기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당연한 정책적 맥락을 고려할 때 필자는 이러한 교육계의 고등교육 재정 확보 노력의 지속적 추진과 함께 다음의 방안을 추가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 분야 투자계획 (2017~2021)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증가율
교육분야	574,123	641,428	681,196	727,417	753,408	7.03
유초중등	471,494	537,326	575,548	604,433	630,558	7.54
고등	94,584	96,159	97,245	112,107	111,900	4.29
평생직업	6,935	6,673	7,086	9,494	9,947	8.18
교육일반	1,110	1,269	1,317	1,383	1,453	6.98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탈피

4년제 대학 졸업장의 가치가 하락한 고등교육 보편화 시대와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감안한 보다 유연한 교육이 필요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존 고등교육기관의 체질 개선과 함께, 다양한 저비용 고등교육의 제공 방식과 가능성에 대한 보다 심층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최근 높은 취업률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는 폴리텍대학은 일반대학 중심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 개선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대표적 직업교육기관이다. 폴리텍대학이 가진 강점은 저렴한 학비,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정 및 탄력적 학사시스템과 학과 관리시스템, 인력수요 변화에 대한 학교 차원의 빠른 대응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변기용·송인영, 2018).

이러한 기능대학의 다양한 특성과 성과는 공영형 전문대 도입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문재인 정부에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채창균 외(2015)의 연구는 현재의 사립 전문대학 위주의 전문대학 시스템을 국가지원의 확대와 더불어 공공 책무성을 갖는 준공영 형태로 개편하는 방안의 실효성과 적시성을 분석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영형 사립대 및 전문대 전환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문대학의 취업률 향상에 대한 분석에서 1인당 재정지원 사업비 등을 통제된 뒤에도 국공립 전문대학과 사립 전문대학은 취업률의 차이가 없는데 비해 폴리텍대학은 상대적으로 훨씬 높은 취업률과 경영효율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이들은 현재의 사립구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단순히 국가의 재정지원만 확대한다고 해서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가져올 것이라는 보장이 없으며, 폴리텍대학과 같은 준공영화를 통한 지원이 오히려 더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만일 '공영형 사립대 도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우선순위 측면에서 우리 고등교육 체제의 어떤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먼저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전환할 것인가의 문제가 단순히 '공영형 사립대 도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단순한 이념적 논쟁보다는 훨씬 유의미한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 어차피 현 시점에서 모든 사립대를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현재 사립으로도 잘 운영되고 있는 대학을 굳이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②

* 본 원고는 변기용, 송인영(2018.2)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 고등교육 개혁 추진 현황과 개선과제: 대학 구조개혁 및 재정지원 사업 재편 정책을 중심으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해외사례로 보는
학생 중심 안전교육의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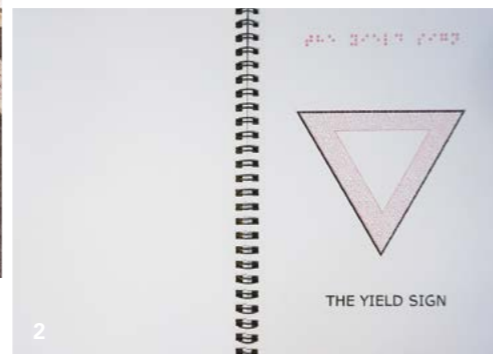
제1차 국민안전교육 기본계획을 보면, 2017년 현재 안전체험관은 155개이며, 2022년까지 22개소를 확충하여 177개의 운영을 목표로 수립하였다.¹⁾ 또한 교육부에서는 2017년 현재 11개의 종합안전체험관 등의 안전교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안전교육 인프라의 주요 대상이 학생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위한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은 학교현장의 안전의식 향상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방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 아마도 확충된 인프라가 학생 중심의 내실 있는 안전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단계를 준비하는 일일 것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필자가 해외 안전체험 인프라의 견학 과정 중 습득한 정보 중 국내 학생 안전교육 인프라 운영 시 고려될 수 있는 사항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1) 관계부처합동(2017). 제1차 국민안전교육 기본계획

정보

- 1. Halton Safety Village 교육장(캐나다)- 15년간 체험시설을 전담한 경찰(사진 맨 오른쪽)은 교육 노하우가 상당하다.
- 2. Halton Safety Village의 교재(캐나다)- 경찰관이 디자인한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점자형태의 교통표지판



해외의 안전체험시설 운영 사례

[사진 1]은 캐나다에 위치한 'Halton Safety Village'이다. 지역기업과 연계하여 기부금으로 시설을 확충하되, 시설의 모양을 기부회사의 상점형태로 구축하여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회사에서는 광고 효과를 노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 체험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 경찰관(사진 1]의 맨 오른쪽)은 해당 시설을 약 15년간 전담 운영하고 있다. 오랜 시간 학생들을 교육하면서 상당한 수준의 교육 노하우를 쌓아 학생 맞춤형 안전교육에 매우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담당 경찰관은 해당 교육에 필요한 교재들을 직접 구상하고 제작할 수준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사진 2]는 시각장애학생들을 위한 교재로 교통표지판을 점자형태로 구성하여 이해력을 높이도록 담당 경찰관이 제작한 것이다.

다음은 영국에 위치한 'Life Skill Zone'으로 오래된 건물의 한 층을 체험시설로 구축하였다. [사진 3]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강사는 지역주민으로 교사로 은퇴한 후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다. 운영의 특징을 보면 무엇보다 참여 학생이 그룹당 3명으로 매우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국내 체험시설이 그룹당 약 60명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 비교하면 차이가 크며, 이와 같은 소그룹 운영으로 인해 수업 집

- 3. Life Skill Zone 침실(영국)
- 4. Life Skill Zone 주방(영국)
- 5. JewishChildren's Museum(미국)
- 6. Fire Zone(미국)



중도가 향상되고, 개별 맞춤형 설명 등으로 인해 교육적 효과가 매우 뛰어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해당 강사는 오랜 경험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에 대한 안전지식을 습득하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여러 분야의 수업에서 반복적인 학습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사진 4]는 주방에서 실시하는 생활안전 코너인데 냉장고를 이용하여 전기안전 뿐만 아니라 앞코너에서 배운 식품안전에 대한 내용을 복습하는 장면이다. 학생들은 고정된 강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교육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가까워짐으로써 안전교육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사진 5]는 미국에 위치한 'Jewish Children's Museum' 내의 안전교육 코너이다. 가장 큰 특징은 시설을 놀이터처럼 조성하여 아이들이 놀면서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사진 5]와 같이 아이들은 안전교육이 끝난 후에도 안전용품을 다루며 스스로 학습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국내의 안전체험시설을 보면 일반적으로 학생들에게 제한된 공간만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개방된 안전교육 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 6]은 미국 뉴욕 증싱가에 위치한 뉴욕소방서의 'Fire Zone'의 모습으로 할머니, 아빠, 아이들이 3대에 걸쳐 안전교육을 받고 있는 장면이다. 우리나라는 가족단위의 안전교육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데 미래의 안전교육을 위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일 것이다. 또한 안전교육을 약 1시간 정도 실시한 후에는 앞의 사례와 같이 자연스럽게 기구들을 만지면서 시설과 친숙해질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가족단위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필요

위에서 소개된 해외 안전체험시설에 대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안정된 강사 운영이 안전교육의 질을 좌우한다는 것이다. 오랜 경험을 통해서만이 다양한 분야의 안전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무엇보다 학생들을 이해하는 교육학적 마인드와 결합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폐쇄된 공간이 아닌 개방된 공간을 제공하여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하는 자기주도적인 안전교육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정 중심의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안전교육도 교육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향일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부에서 운영되는 안전체험시설은 가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개발·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새 학기, 소극적인 아이와 만났을 때

적극적인 아이들은 교사의 눈에 잘 띄입니다. 언제나 씩씩한데다가 목소리도 크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에게 교사의 눈이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좀처럼 목소리를 듣기 어려운 아이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고 강하게 자신을 어필하지도 않지만 이런 조용하고 소극적인 아이야말로 교사가 일부러 더 눈여겨 바라봐야 하는 아이인 셈입니다.

『용이 되기 싫은 이무기 팡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모든 이무기는 용이 되기 위해 태어나는데, 용이 되기 싫다니 참 뜻밖입니다. 무기 이야기를 가만 읽다 보니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무기는 왜 만날 용이 되고 싶어 안달일까. 이무기들도 각자 개성이 있을 텐데 모두 용이 되고 싶어 할 리 있을까? 기왕에 이무기로 태어났으면 멋진 이무기가 되면 안 되는 거야?’



에서는 찬란한 빛을 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항상 조용하고 소극적일 거라고 단정 짓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배역이 박수 받는 교실로

그러니 설사 조금 조용한 아이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교실에서 지내는 동안 안정적이고 따뜻한 분위기 안에서 조금씩이라도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주면 되는 것이지요.

아이들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주세요. 조용한 아이는 조용한 아이대로, 목소리 큰 아이는 목소리 큰 아이대로 존중해주시고, 교사가 늘 따뜻하게 지켜본다는 것을 학급 모든 아이들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작은 목소리든 큰 목소리든 함께 어우러져 하나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이지요. 주인공이 되기 싫은 아이에게 억지로 주인공 역할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행인3이 좋으면 행인3을 맡으면 됩니다. 행인3도 주인공만큼 박수 받는다면 말이지요. ②

조용한 아이라고 단정 짓지 말자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냥 이무기하면 어떤가요. 이왕 이무기로 태어났으면 멋진 이무기가 되면 되는데 말이에요. 교실에서 비주류인 소극적이고 조용한 아이들을 우리가 어찌면 이무기처럼 대해온 건 아닐까요. 용이 되기 싫은 아이들을 억지로 용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보통 적극적인 아이들이 모둠활동을 주도하면서 학급도 이끌어갑니다. 학급 행사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 아니라 다른 아이들에게도 자극을 주기 때문에 교사로서는 이런 아이들이 참 고맙습니다. 교사로서는 이런 아이들이 많아 활기가 넘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교실에서 막상 학급의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보면 적극적인 아이 열 명보다 소극적인 아이 한 명에 더 마음이 가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교사의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소극적이고 조용

한 아이가 학급에서 불편한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훨씬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주류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 학급 운영이라고 믿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교실이라는 생각 뒤에는 주인공만 중요하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어떤 영화든 주인공이 있으면 조연도 있고, 행인처럼 사람들의 기억에 잘 남지 않는 조출한 단역도 있습니다. 주인공만 스포트라이트 받고 박수 받는 듯해도 사실은 모두가 각자 제자리에서 자기 일을 잘 해내는 것이 훌륭한 영화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모든 배역이 저마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냥 소극적이고 조용한 아이처럼 보일지 몰라도 언제까지나 비주류로 남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실에서는 조용했지만 다른 교실에서는 주인공이 되는 아이도 있고, 다른 교실에서는 존재가 드러나지 않던 아이가 우리 교실

소극적인 아이를 위한 활동TIP!

학급에서 해볼 수 있는 소극적인 아이들의 목소리를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 1 **'나의 인생그래프' 그려보고 이야기 나누기**
살아온 이야기를 그래프로 그려봅니다. 행복했던 일은 수직선의 위쪽에 표시하고, 슬펐던 일은 수직선의 아래에 표시해서 꺾은선 그래프로 그려보게 합니다.
- 2 **'너는 특별한 아이야'**
아이를 칠판 앞 의자에 앉힙니다. 선생님과 친구들이 아이의 장점을 포스트잇에 적어 칠판에 붙입니다. 아이가 몸을 돌려 직접 포스트잇을 읽어보게 하고 느낀 점을 이야기 나눕니다.
- 3 **'저마다 다른 빛으로 빛나는 우리들'**
다중지능이론을 적용한 모둠활동 수업을 합니다. 강점 지능별로 모둠을 정하고 좋아하는 활동을 하게 합니다. (예 : 언어지능-시 쓰기, 음악지능-노래가사 바꿔 부르기, 신체운동지능-몸으로 나타내기 등) 수업한 다음 사람마다 잘 하는 것과 자신 있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미투 운동’과

악의 평범함에 대한 재인식

1960년에 체포되어 1961년에 시작된 아이히만 재판은 흥미롭게도 우리 인간이 ‘악의 평범성’을 새삼스럽게 인식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또 ‘지배와 복종’ 문제와 관련하여 예일대학의 스탠리 밀그램(Stanley Milgram)이 ‘밀그램 프로젝트’라 부르는 유명한 실험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나 아렌트는 이 재판을 취재하면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직무에 충실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아이히만으로부터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채 악행을 저지르는 보통사람의 모습을 보았다. 그래서 그는 아이히만의 그 같은 모습으로부터 악의 평범함이란 개념을 도출해냈다. 반면에 정상적인 인간에게는 잘못된 명령을 거부하고 정의롭지 못한 권력에 저항하는 도덕성이 있다고 믿었던 스탠리 밀그램은, 그래서 아이히만은 범죄자라고 생각했던 밀그램은 아이히만 같은 학살의 장본인들에게 확실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평범한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 앞에서 권위에 복종하거나 저항하는지를 밝히는” 실험을 기획했다.

밀그램의 권위에 대한 ‘복종 실험’

밀그램은 먼저 신문에 광고를 내서 평범한 사람들을 자원자로 모집한 후 이들에게 교사의 역할을 부여했다. 그리고는 이 교사들에게 손목에 전극을 붙인 채 끈으로 묶여 있는 학생을, 사실은 학생이 아니라 연기를 하게 될 배우를, 보여준 다음 이 교사들을 학생과는 다른 방으로 데려가서 15볼트로부터 450볼트까지 15볼트 간격으로 30개의 스위치가 나란히 있는 기계 앞에 앉혔다. 그리고는 학생에게 일정한 단어쌍이 연상시키는 단어를 말하게 하고 틀릴 때마다 한 단계씩 전압을 높이라는 역할(명령)을 교사에게 맡겼다. 동시에 학생 연기자에게는 75볼트에서는 앓는 소리를 내고, 120볼트에서는 소리를 지르고, 150볼트에서는 실험을 멈춰달라고 요구하고, 270볼트에서는 몸부림치는 비명을 지르고 350볼트에서는 죽은 것처럼 움직이지 말라는 주문을 해놓았다.

그런데 실험 결과는 대단히 충격적이었다. 교사 역할을 맡은 사람들의 62.5% 이상이 최대전압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전기충격을 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밀그램은 실험 참가자



지배와 복종에 대한 밀그램의 실험으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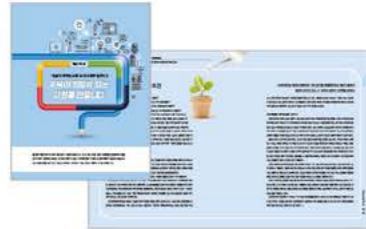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평범한 인간은 잘못된 권위에 대단히 취약하다는 사실이며, 그 평범함을 이용하고 조종하는 인간이나 체제의 출현을 막아야 한다는 경각심이다.

들이 처한 환경을 여러 가지로 바꾸어 가며 실험을 계속해 보았지만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교사가 처한 환경과 그들이 지닌 성격이나 생각에 따라, 그리고 학생이 반응하는 고통의 강도에 따라 충격을 중도에 중단하는 일이 많을 것이라 예상했던 결과가 크게 빗나간 것이다. 유대인 학살의 책임이 특정한 종류의 권위주의 체제와 그 체제를 이끈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던 실험이 엉뚱한, 아니 정반대의 결과를 낳은 것이다. 그래서 밀그램은 이 실험의 결과 앞에서 “무섭고 암울하다.”고 말하면서 “나는 한때 미국에 악랄한 정부가 등장해서 독일과 같은 죽음의 수용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도덕적으로 열등한 인력을 확보하는 일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뉴헤이븐 한 곳에서도 다 채울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는 절망감을 토로했다.

악의 평범함과 성범죄

결국 밀그램이 자신의 실험을 통해 확인한 것은 우리 모두의 내면에 악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으며, 악이란 결코 특별하거나 예외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처럼 지극히 평범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밀그램이 악의 평범함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진실에 가깝다.”고 말한 것은 우리 모두 속에 아이히만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개되고 있는 ‘미투 운동’과 이 운동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수많은 성범죄는 우리에게 다시 한 번 악의 평범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낯선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이 평소 가깝게 지내던 동료, 이웃, 선배, 선생 등이기 때문이다. 어느 날 어두운 골목에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성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일상적 생활을 함께 영위하던 사람들이 성추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악의 평범함을 밝혀준 밀그램의 실험과 우리 주변의 성범죄들이 평범한 사람이 곧 악인이라고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지배와 복종에 대한 밀그램의 실험으로부터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평범한 인간은 잘못된 권위에 대단히 취약하다는 사실이며, 그 평범함을 이용하고 조종하는 인간이나 체제의 출현을 막아야 한다는 경각심이다. 우리 인간이 지배에 아무리 취약해도 우리가 미워해야 할 대상이 평범한 개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세상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한사코 평범한 개인이 아니라 그 개인을 악인으로 만드는 세상과 사회와 권력을 미워해야 한다. ⑦



독자 리뷰

창의융합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교사들의 학습공동체를 통한 교수 학습 개선,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믿음과 신뢰, 학교장의 수평적이고 의사표현이 자유로운 학교 분위기 조성, 국가의 교사 능력 신장을 위한 다양한 연수 개발 등 우리 사회의 전반적이고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모니터단 목지영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학생의 과목 선택 기회가 보장되고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에 좋은 정책이라 생각한다. 어떻게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느냐가 관건인데 교원 업무구조 재조정이 시급하다. 기사에서 언급된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제언처럼 학교의 업무적 포화 상태 해소, 교사의 업무에 대한 존중이 이루어진다면 고교학점제의 순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 모니터단 김석우

발행일 2018년 3월 15일
발행처 교육부
발행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
편집인 대변인 임창빈
기획총괄 홍보담당관 안순억
교육연구사 정용주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변인실 431호
TEL 044-203-6573

편집실

기자 이순이 한주희
사진 김경수 이대원 최원석
디자인 홍지화 홍수명
마케팅 류광민
서울시 중구 퇴계로 36가길 10 세정IT빌딩
304호 (주)전우용사촌
TEL 02-2271-0992

Event 표지이야기 '혁신을 키워드로 톡톡 튀는 재미난 이행시를 지어주세요. 매달 30일까지 **행복한 교육**(<https://happyedu.moe.go.kr>) 홈페이지 → 이벤트 참여에 남겨주시면, 당첨되신 분께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문의 02-2271-0992

웹진



행복한 교육 웹진에서 더 다양한 교육정보를 만나보세요.

<https://happyedu.moe.go.kr>

정확한 교육정책과 학교 현장의 생생한 소식들이 가득합니다.


구독신청

『행복한 교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구독을 신청하시면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문의 02-2271-0992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의 꿈도 그렇다

 교육부 x 나태주 시인 '풀꽃'이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응원합니다